

ISO/TC 232 및 ISO/PC 233



문화서비스표준팀 공업연구관
육근성

02-509-7280 / yooksung@mocie.go.kr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 새로 구성된 ISO/TC 232(교육 서비스)와 ISO/PC 233(크리닝 서비스) 의 국제표준화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활동 전략 수립

! 07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크리닝 서비스 KS화업무에 참고하여 차후 국제표준 작업에 반영

- 출장지: 독일 베를린, 독일 표준협(DIN)
- 출장기간: 2007. 3.24 ~ 4.1
- 출장자: 문화서비스표준팀 연구관 육근성

2. 회의 개요

가. ISO/TC 232(교육 서비스) 제1차 회의

- 일 자: 2007. 3.26 ~ 3.27
- 참석자: 12개국 4명

국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델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호주	아일랜드	계
참석자	8	7	4	3	2	2	2	2	1	1	1	1	34

- Chairman : Dr. Thomas Rau(독일)
- Secretary : Dr. Holger Muehlbauer(독일 DIN)

나. ISO/PC 233(크리닝 서비스) 제1차 회의

- 일 자: 2007. 3.29~3.30
- 참석자: 9개국 5명

국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델란드	한국	계
참석자	3	3	2	2	1	1	1	1	1	15

- Chairman : Dr. Holger Muehlbauer (사정상chairman의 참석치 못하여대신함)
- Secretary : Dr. Holger Muehlbauer(독일DIN)

3. 회의 결과

가. ISO/TC 232(교육서비스)

- TC 명칭과작업범위(scope)를 결정
- TC 명칭: 비정규교육및 훈련을위한교육서비스 (Learning services for non-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 작업범위
 - 비정규교육및 훈련서비스의요건표준화
 - 정규교육시스템관련명성요건표준화
 - 윤리강령요건표준화
 - 16세 이상의 비정규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기관고객을 주 대상으로 함
- WG 1(작업반) 구성및작업항목결정
- WG 1 명칭: 교육서비스제공자(Learning services providers)
 - 컨비너: Dr. Karsten Koitz(독일)
 - 간사국: 독일DIN
- 작업항목: 비정규교육및 훈련을위한교육서비스- 서비스제공자의기본요건
 - 표준의성격은포괄적(generic)으로, 향후작업할

분야별(sector-specific) 교육서비스표준의기초가 되도록함

- 현재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 dancing school, language training, 스쿠버다이빙 훈련 등에 관한 서비스 표준이 있음
- 한국을비롯한8개국이표준화작업에적극참여 의사를표명하고전문가를지명하기로함
 - 오스트리아, 호주, 독일, 프랑스, 한국, 네델란드, 영국, 미국

- 특별리서치그룹(Ad Hoc Group) 구성
- 프랑스의제안으로구성된특별그룹은시장조사/타당성조사, 기제정된각국의표준및 국제규정 조사, 국제표준의 니즈(needs)를 규명하여2007. 12.31까지TC에 보고하기로함
 - Ad hoc group은프랑스AFNOR가운영
 - 회원국은2007. 4.30까지 참가자를지명하고정보를제공하기로함

□ 차기회의

- 일자: 2008. 3.31 ~ 4.1
- 장소: 미국(도시는추후통보)

나. ISO/PC 233(크리닝 서비스)

- 작업항목의명칭과작업범위(scope)를 결정
- 명칭: 크리닝 서비스 제공 요건 및 권고사항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provision of cleaning services)
- 작업범위: 크리닝서비스및 크리닝관련서비스 제공에대한요건및 권고사항을규정하며, 크리닝 서비스분야에서조달목적을위해제외참고 시스템을제공

二 표준화작업관련기초자료

- 기제정된크리닝 서비스 표준인 싱가포르SS 449(2002년) 및 유럽EN 13549(2001년)를기초로 함
- 유럽크리닝산업연합회(EFCD) 지혈 크리닝 서비스와유사한시설관리유럽표준인EN 15221-1/2(2006년)을참고
- 그 외 영문으로작성된모든표준에대해조사하여참고

二 작업안구성structure에합의

- 제목: 크리닝서비스제공요건및권고사항
 - 서언
 - 개요
 - 적용범위
 - 인용규격
 - 용어및정의
 - 요건및권고사항
 - 크리닝 인력
 - 계약 관리/운영

부속서A.1 평가가이드라인

- A.2 SLA(Service level agreements)
- A.3 업무기술및평가

· 각국은 2007. 9.1까지 할당된 작업안을 독일 Dr. Muehlbauer에게 제출하기로 함

二 표준화추진일정

- CD(2008. 6)→ DIS(2008.12)→ FDIS(2009.12)→ IS(2010.6)

□ 차기회의

- 일자: 2007. 12.3~12.4
- 장소: 덴마크코펜하겐

4. 관찰 및 시사점

가. ISO/TC 232(교육 서비스)

□ 표준화범위에관한논의

- 문화와IT 분야는제외하기로함
 - 문화적, 윤리적관점 제외하고경제적인관점에 서출발하기로함
- 프랑스는공교육과사교육제공자의차이가없다며공교육도포함시키기를력히주장함. 그러나 공교육은정치적영향을받기쉽고공교육기관은 품질경영시스템에 제외된다는주장이 제기되어표준화범위에서제외됨

□ 각국의주도권경쟁

-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스위스참국의 입장을 발표하는등 초반부터각국은주도권선점을 위해열띤논쟁을함
 - NF X 50-750 등 professional training에 관한6종의 표준을보유하고있는프랑스는독일이기선을빼앗긴데대한불만으로절차상의이의의를제기하고 있으나독일은ISO/IEC 규정에 의해 아무 하자 없이운영되고있음을강조함. 이런프랑스의불만을수용하여ad hoc research group를구성하게됨
- NWIP 투표시참여의사를표명하지않은 미국은 8명의 대표단이참가하여참가국들특히 한국과 일본에적극적인접촉을 시도하고자회의를유치하는등주도권을잡기위해노력
 - 현재 미국은세계1위의교육 서비스수출국이며 교육서비스는미국 서비스수출에서5위를 차지 (미국상무성자료)
 - IACET(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의 표준개발위원회에서 개발한53종의 표준을미국국가표준ANSI)으로

- 현재추진중이며이를국제표준으로추진하고자함
- 스위스는교육서비스의주요고객특히개발도상국 입장에서활발한의견을제시하여회의진행에중요한영향을미침. 대표인 Mr. Saner-Yiu는 타이완 출신(스위스인남편과함께 참석)으로비영리연구기관을운영하고있으며ISO/TC 176의 훈련관련 가이드라인인ISO 10015 작성에도참여한바있음. 타이완을위해서도일하며같은입장에있는한국과의협력을요청
- 우리나라는스위스와의협력을검토할필요가있음
- 5. 향후 계획

나. ISO/PC 233(클리닝 서비스)

- PC(Project Committee) 구성의의
- ISO TMB(기술관리부)회의에 2006. 6월 PC 운영을결정
- PC는 1~2개의표준을만드는경우, NWIP 투표가 통과되면구성이가능하며NWIP를 제안한나라에서사무국을담당하며표준을관리함. 일단표준이완성되면해체하였다가후에 개정이필요한경우PC를 재구성
- 구성이용이하고시간 절약, 비관료적인점이 장점으로표준화기간은3~4년으로TC와큰 차이는없음

□ 북유럽국가의독주

- 참석자9개국15명 중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4개국에서9명이참석하여북유럽국가의독주가절대적임. 이들은EN의유럽표준화작업에서도함께일한멤버들로팀워크를시
-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의불참에대해독일은 진행상황을관망하는타입과경제적인이유로 자체분석을함
- 경제적인사유에는가나, 북한이해당되며프랑스

□ 독일의 전략적 접근

- 유럽위주의참여국을글로벌화하기위해 표준화 제안국인독일은미즈근한입장인일본에대적극적인참여를표명한우리나라에차기대회유치를요청하는등전략적인접근을하고있음.

가. ISO/TC 232(교육 서비스)

- 국내 산업교육업계와협의하여교육서비스ad hoc group에 참여할 전문가를우선 지명하고교육서비스전문위원회를구성
- 스위스대표와지속적인관계를유지하고진행상황을면밀히분석하여우리에게 유리한국가와의 전략적관계를 모색
- 차기 회의에는관계분야의다양한국내전문가참석을추진

나. ISO/PC 233(클리닝 서비스)

- 클리닝 서비스표준화작업은계획대로순조롭게 진행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유럽표준과상가포르 표준을참고하여KS 표준화용역사업을해 완료하여차기회의에는우리안의반영을추진
- 2008년도PC 233 회의를국내에서개최하여독일에 적극협조하는한편국제표준화활동에서우리의입지를높이는계기마련
- 국내 관련 전문가모임을조직하여회의 참가및 차후국제회의개최에 대비

| 기술표준2007. 5